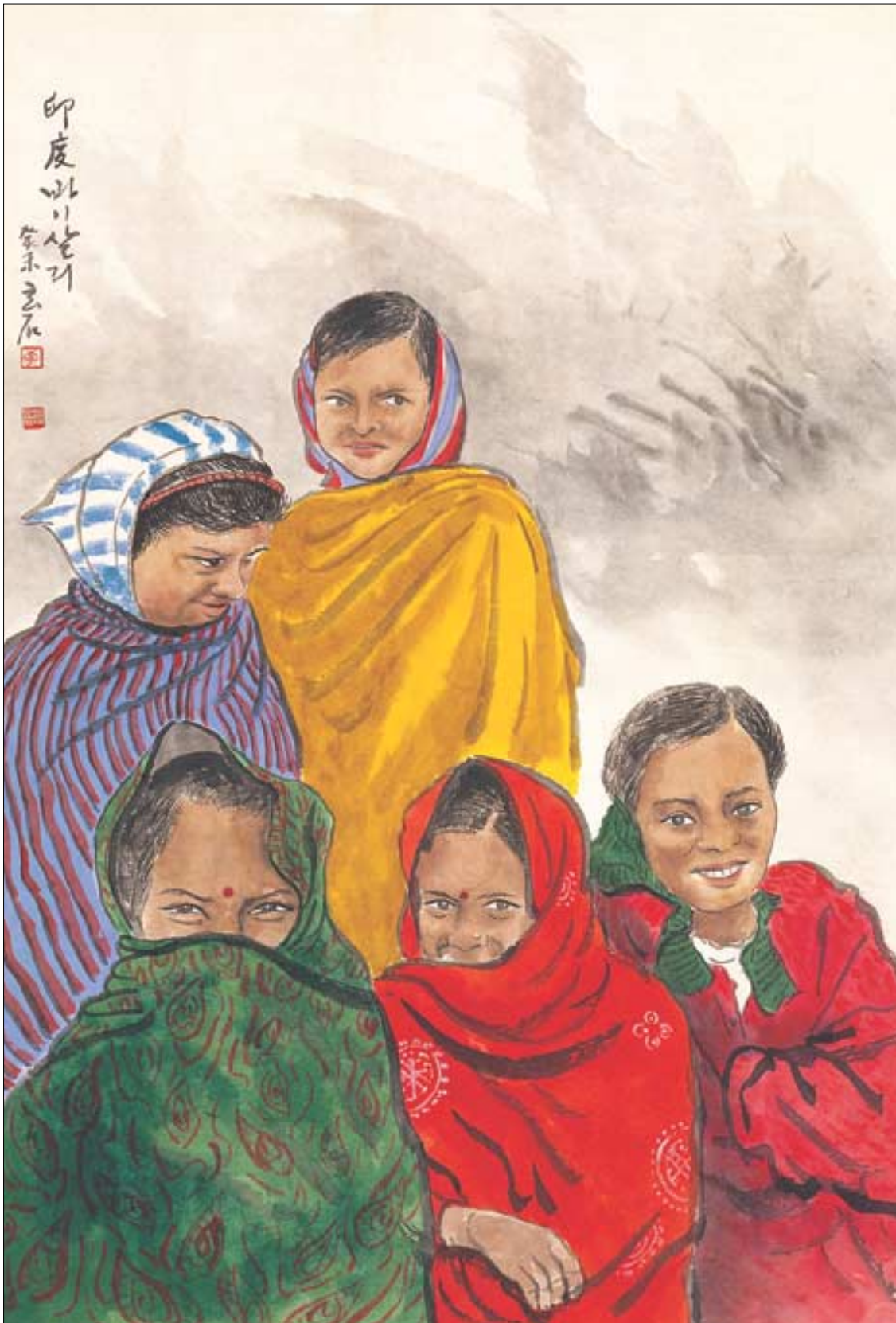


'공양'의 어여쁜 흔적이여!



마지막 설법 기념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석주 망고동산 부처님께 희사했던 기녀는 없고 거목만...

우리시대의 유마를 찾아서 (유마 거사 집터와 아쇼카 석주)



"부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나쁜 시간, 차에서 졸고 가는 일행들을 깨우기 위해 스님께서 '인도 기행'을 통해 느낀 바를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발표하자는 제의에 베풀 같이, 그러나 조용히 말씀하시는 어른이 계셨다.

성지탐방은 석가세존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처럼 믿음과 확신에 찬 노인의 음성 앞에 일행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일찍이 송광사 구산선사(九山禪師) 문하(門下)에서 수행하며 평생 보살행을 실천해 오신 달공(達空) 조홍식(趙洪植) 박사님(82세, 불문확전 공).

대낮에 기원의 등불을 켜고 유마의 집터를 찾아 가는 길에 우리는 오늘 한국의 유마 거사와 함께 옛 유마의 고향집을 찾아간다.

"일체 중생이 앓고 있으므로 나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사라지면 내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유마 거사)

"유마 거사의 보살행처럼, 그의 스승이신 부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조 박사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중병에 대해서 단호한 진단을, 그리고 실천행동을 주장하신다.

"공기와 수질의 오염과 환경과괴를 막아 지구를 지키는 지름길은 다룬데 있지 않다. 소비자의 각성에 있다. 이 각성만이 세계를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인간성을 부패로부터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로 부터 해방돼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마음부터 청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 나의 소비를 줄여 굶는 이웃과 나누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리라." (조홍식, <달처럼 매화처럼> 316쪽)

망고 동산을 보다가 기증했다는 기녀(妓女) 암라팔리 집터 주변을 유마 거사의 집터로 짐작하고 찾아갈 뿐 그 어떤 표시도, 안내판도 없는 쇠뿔마을.

마치 쇠뿔 페스티벌이 열린 양 어느 것은 벽돌을 찍은듯 하고 또 벽을 쌓어놓은 듯한 형상이 차곡차곡 곱물처럼 쌓여있다. 그리고 길목마다 무성한 노거수는 가는 줄기가 뿌리로 다시 뻗어 내리는데, 그 거목의 기상은 허공 속에서 천지의 기운을 장악하고 있다.

마침내 유마의 집터로 알려진 마을은 가난하다기 보단 자연 속에 의지한 생활과 가족구조이다. 대나무로 엮고 뽕진으로 깔대기처럼 엮은 창고며, 빛살로 벽을 둘러 초가지붕, 그 위에 빈대떡 같은 쇠뿔 밭같은

아직도 원시의 삶에 그대로 닿아있다. 습하고 기운의 차가 심한 지역인 지라 소들이 모두 거적을 쓴 채 여물을 먹고 있으며 유일하게 녹슨 수동 펌프 하나가 이곳 생활의 문명으로 비쳐졌다.

마을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오고 어여쁜 소녀들이 수줍어하며 일행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해맑고 순박한 소녀들이 입은 옷은 매우 화려한 색상이다. 뜨겁고 강렬한 원색의 드레사 속에 감추어진 부끄러움과 수줍음이라니...

"이렇게 마을 구경이나 할 게 아니라 다음 순례객을 위해 '유마 거사 집터 팻말'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십시오."

달공 거사, 조 박사님의 말씀에 모두는 마음속으로 갈채와 성원을 보냈다.



◇바이살리 아쇼카석주(45×30.5cm).

오후의 일정은 인도에서 유일하고도 완벽하게 남은 아쇼카 석주와 스투파를 찾아간다. 인도 국적이 사자상인 만큼 기대되는 아쇼카 석주.

콜후아(Kolhua) 마을에 위치한 석주와 스투파는 매우 거대하고도 건장하게 남아있었다.

현장 스님은 "아쇼카 왕이 세운 스투파가 있는데 옆에는 돌기둥이 있다. 높이가 50-60척인데 위에는 사자상이 놓여 있다"고 기록한바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는 듯 하다.

특히 석주의 높이는 6.6m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지형상 세운 게서 행하신 마지막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한다. 주변엔 현재 발굴이 진행중인 유적들이 즐비한데 붓다께서 머물며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설했던 곳이 또한 이곳 중각강당(重閣講堂)이 아니었나 짐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에 전하는 원숭이 연못(Markatahara-da-tire). 원숭이 떼들이 붓다에게 꿀 공양을 바쳤다는 연못은 돌사자상 석주 바로 뒤쪽에서 살펴졌다. 그 연못에 그림자를 드리운 한 거대한 망고나무는 옛 사연을 함께 들고 있는지. 기성 높은 석주와 쌍을 이루어 물결에 어난다.

스투파 제단엔 붉은 천에 노란 꽃을 켤 두개의 목걸이가 바쳐져 있고 벽돌 틈새마다 향이 꽃혀있다. 그리고 손 때 문은 몇 장의 푸피가 돌맹이에 눌린 채 팔랑거린다. 어느새 물러들었는지 화전을 펼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발나 구경이나 되는 셈인지 화점과 스투파를 번갈아 손지하며 깔깔거린다.

아예 자리를 깔고 먹을 갈며 물갈까지 펼쳐놓은 나를 눈치 채 일행들은 오늘 모두 나에게 유마가 되어준다. 따가운 햇볕 속에서 염승과 탑돌이를 지속해주는 고마운 배려로 그림이 이루어진 까닭이다.

lsh1957@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더어행사

◀바이살리의 소녀들 (64×92cm).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 행운을 소원성취척척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금강염주

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과의 점수가 약 5-10%까지 격차가 나는 통계적 보편 실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들이 발생되어 수험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여 건강이 약해지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는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꼭 몸에 지니고 시험을 치르면 금강의 강한 기와 마음의 안정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애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점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능 협

전혀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통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 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동구 권동로 177 17층 40405호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연분을 찾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투병중인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므로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주문 판매 합니다.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으로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썩어가는 것도 살균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불어넣으면 불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헹구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불어는 20분 내로 청결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지체,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지며 기력이 줄고 하얀 얼룩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가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몸이 지푸둥하고 목이 뻣뻣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며 몸이 개운해 집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일어나면 기침이 줄어들습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올을은 공기속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cc당 약2,000 정도 공급되는 음이온을 첨가한 은행석은 신장계, 환골계, 근육계, 내분비계등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각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율신경의 기능에도 효과적이며 항상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항상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 합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한 수험생, 수험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쯤년기 주부님들,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 문의전화: 금강덕터사 (02)722-1850 ◆ 농협: 170-12-056307 정영애

氣가발산되는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문양이 은은하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를 수입 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현으로 숭앙되고 있는 수행자이시며 포대화상 향로로 조각하여 많은 사찰 및 스님들께서도 소장 하고 있으며 불자님들의 집이나 사업장에 두시면 화를 쫓고 복과 행운이 오며 사업도 번창하고 소원 성취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 에 웃음을 주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을 베풀어주며 불심을 전파하고 포교 활동의 매체가 되도록 기원 합니다. 포대화상 향로는 정교한 조각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또한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복 받음 마음을 이루어 주며 예불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포대화상 향로입니다.

◆ 크기 : (대)가로26cm 폭15cm 높이16cm 가격 155,000원 (소)가로 20cm 폭12cm 높이16cm 가격 95,000원 (수공예품이라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3210-3170 /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